

전시 계획서

주 최	공간섬알	주 관	공간섬알	후원	인천문화재단
소요시간	40분	입장권 예상가격	무료	관람연령	모든 연령 가능
전시 취지		아차도 예술공동체 '공간섬알'의 작가들이 '인천형 예술인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 본격적인 전시를 앞두고 폐가로 상징되는 섬의 소멸과 재생의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하는 작업으로 리서치 과정의 결과물을 선보이고자 한다.			

전시 개요

.아차도라는 소외된 작은 섬의 폐가를 대안적 공간으로 수리하고 재생시키면서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탐색과 기록을 통해 소멸해 가는 무언가를 재생시키는 시도가 가능한가, 한계에서 회복이 가능한가란 질문을 던지며 그동안 쉽게 잊고 지나쳐간 다양한 가치들에 대해 고찰할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 특히 현재와 같이 고도화된 도시사회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자본에 의해ダイナ믹하게 전환되는 현실에 익숙한 동시대인들에게 자연과 시간의 흐름에 순응하며 사는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섬의 모습은 잊혀진 가치를 탐색하게 하며 감정의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차도의 정치 지리적 특징 또한 한국 근대사의 일부로 기록의 가치가 있고, 인식의 확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젝트는 작게는 외딴 섬의 폐가를 업사이클링 하여 다양한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아차도가 지닌 DMZ라는 지리적 특징과 6.25와 연관된 산업 구조, 지구 온난화로 인해 변화된 섬의 모습은 마치 지구 전체의 미니어쳐와도 같다. 다만 그 속도가 더 빠르고 직접적으로 다가오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구의 문제들을 돌아보는 기회도 될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세 명의 작가가 본격적인 내년 전시를 앞두고 지역탐색과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리서치 과정과 결과물, 섬 활동가와 비평가와 함께 하는 라운드 테이블 자리를 마련한다. 아차도 지역과 폐가들을 둘러보고 탐색하며 오래된 폐가 한 곳을 청소하는 영상, 사진으로 기록한 10년간의 폐가의 변화, 폐가와 배와 관련한 주민들의 인터뷰, 폐가에서 나온 목재를 사용하여 제작한 포토타입 소형 배를 타고 아차도 앞바다에서 운행하는 영상, 주민들이 자신의 집을 중심으로 그린 약도 드로잉, 어선을 타는 주민이 찍은 바다 사진 등 다양한 리서치 결과물과 3x1.4m 크기의 배가 전시된다.

참여작가 및 단체 소개

공간섬알은 강화군 서도면 아차도에 위치한 복합예술공간이자 시각예술작가와 창작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예술공동체다. 2012년 공공예술프로젝트를 통해 아차도 주민과 인연을 맺은 작가와 2018년부터 주민들 주체적 창작 활동을 시작했고, 2022년에는 그 동안 예술활동을 매개로 아차도에 유입된 홍유경, 신제현, 홍성용 작가가 지역을 기반으로 리서치, 설치와 미디어 작업, 협업 프로젝트 등 작가들의 활동을 통한 전시를 기획하면서 지역과 연관된 작가적 역량을 강화하며 예술 공동체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공간섬알의 활동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정체하지 않고 변주하는 예술 활동을 지향하며 아차도가 예술의 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을 향해 현재 진행중에 있다.

전시 경력

2021 전시, 예술축제 <수평선 라이브>, 아차도 마을 선창 앞

2020 전시, 패션쇼 < 내 바지는 내가 그린다 >, 공간섬알, 아차도

2018 전시 <별 볼 일>, 공간섬알, 아차도